

#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3. 3. 15 | 통권 제38호(2013-02) |

##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코호트 분석

### [ 요약 ]

- 고졸 미만 및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대부분의 코호트(연령대)에서 경제위기 시점(외환위기, 카드대란 등)에 고용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코호트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고졸 미만 전기청년층(20~23세)의 상용직 비중은 70.3%에서 이들이 32~35세가 되는 2011년에 24.4%로 대략 2/3가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과 미취업자 비중은 각각 39.6%, 29.4%까지 증가해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고용악화가 가장 두드러짐.
- 청년층 코호트의 비교시점을 막론하고 저학력 청년층의 근로소득 규모는 고학력층에 비해 낮고 증가율도 낮아 학력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근로소득 증가가 둔화 경향이 가장 뚜렷한 학력집단은 고졸 미만 저학력층임.
- 20~35세 청년층의 외환위기 이후 빈곤규모와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빈곤위험이 높게 분석되고 있으며, 빈곤청년층의 소득증가 둔화로 인해 빈곤갭과 빈곤심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저학력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근로소득의 둔화와 빈곤위험을 높이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저학력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와 근로소득 확보를 위한 고용·사회정책을 통해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머리말

- 청년기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장기화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토대를 약화시켜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하는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됨.
-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취업을 통한 안정된 소득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이며, 특히 청년고용 악화가 전기청년기(20~23세)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30대 중후반의 후기청년기까지 이어진다면 근로빈곤이 청년기 전체로 상시화되어 나타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청년층 학력수준별 고용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코호트 분석(20~23세, 24~27세, 28~31세, 32~35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1991~2011년 자료임.
  - 분석시점은 1991~2011년과 1999~2011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외환위기 시점과 그 이전의 고용상태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기 위함임.

## 청년층 코호트의 종사상지위 변화

- 고졸 미만 및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층의 고

용상황은 각 코호트(연령대)를 막론하고 경제위기 시점(외환위기, 카드대란 등)에서 고용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고졸 미만 전기청년층(20~23세)에서의 상용직 비중은 분석시점의 변화에 따라 크게 하락함. 1991년 99.5%에서 이들이 40~43세가 되는 2011년, 즉 장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그 비중이 47.5%까지 하락함.

- 같은 기간 0.5%에 불과했던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9년 외환위기 시점에 11.5%, 2003년 카드대란 시점에 54.5%로 급증하였고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1년 기준 36.7%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게 높아짐.

- 이와 같은 양상은 중기청년층(24~27세) 및 후기청년층(28~31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년 3월 기준 최종학력이 고졸인 2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동일 연령대의 고용률인 75.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음.

※ 실업률의 경우는 고졸 청년층(25세 이상 35세 미만)이 4.2%로 대졸 청년층 4.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32.0%)이 대졸 청년층(20.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는 전기청년층에서 상용직 비중이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위기나 카드대란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도 상용직 비중 하락이 경험되지 않아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임.

〈표 1〉 청년코호트(20~35세)의 학력별 종사상지위 변화 : 1991~2011년

(단위: %)

		코호트1 (20~23세)			코호트2 (24~27세)			코호트3 (28~31세)			코호트4 (32~35세)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1991	상용직	99.5	71.9	67.8	55.6	82.1	81.5	60.5	75.6	83.7	58.0	67.1	78.3
	임시일용	0.5	1.5		17.0	3.0		8.2	3.2		11.5	5.2	
	자영업		5.1	17.4	25.9	10.2	11.9	25.3	19.7	14.5	28.6	25.9	18.8
	미취업		21.5	14.8	1.5	4.7	6.6	6.0	1.5	1.9	1.9	1.9	2.9
1995	상용직	52.2	83.0	87.9	67.2	71.3	81.8	47.7	58.8	75.4	47.5	53.9	66.5
	임시일용	13.0	2.0		14.9	3.5	0.4	19.3	3.6	0.8	14.6	2.8	0.3
	자영업	24.3	13.4	3.0	17.3	23.0	14.1	29.9	35.0	21.3	34.3	38.8	27.5
	미취업	10.6	1.6	9.1	0.6	2.3	3.7	3.1	2.6	2.6	3.5	4.4	5.7
1999	상용직	59.4	66.0	72.7	48.7	55.8	74.4	39.0	50.1	61.3	37.8	48.9	67.9
	임시일용	11.5	4.7	3.9	9.5	6.5	0.2	21.2	5.6		15.7	4.9	0.4
	자영업	17.6	19.7	17.5	30.9	30.0	21.8	31.3	38.4	29.4	38.1	36.4	24.1
	미취업	11.5	9.6	5.9	10.8	7.7	3.6	8.5	6.0	9.3	8.4	9.8	7.6
2003	상용직	13.8	44.6	70.1	23.0	43.8	64.3	22.2	38.5	57.7	20.4	43.6	59.5
	임시일용	54.5	18.5	5.1	50.3	21.7	5.2	34.6	14.5	4.4	31.8	15.6	2.5
	자영업	9.6	30.8	19.8	16.0	28.1	25.0	33.7	40.0	32.1	35.0	33.0	29.2
	미취업	22.2	6.2	5.0	10.8	6.4	5.6	9.5	7.0	5.8	12.8	7.8	8.8
2007	상용직	51.4	59.3	77.8	46.5	50.8	67.5	35.1	44.8	65.7	37.5	46.7	59.0
	임시일용	21.3	9.1	1.6	15.0	7.9	1.3	22.5	9.0	1.6	22.3	7.5	1.1
	자영업	7.7	24.5	15.3	23.3	34.7	26.3	31.8	38.0	26.1	27.6	34.0	33.9
	미취업	19.5	7.1	5.3	15.2	6.5	4.9	10.6	8.2	6.6	12.6	11.8	6.1
2011	상용직	47.5	39.7	69.6	24.9	44.0	66.7	23.6	34.4	61.6	22.1	36.0	60.4
	임시일용	36.7	20.9	5.0	32.0	21.9	6.8	33.4	21.4	7.8	31.6	19.1	9.9
	자영업	8.8	29.5	19.6	36.4	25.3	22.2	31.0	34.2	22.5	28.9	35.9	17.8
	미취업	7.1	9.9	5.8	6.8	8.7	4.4	12.1	10.0	8.1	17.4	9.0	11.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동일한 방법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코호트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약화가 가장 두드러짐.
  - 전기청년층의 경우, 고졸 미만과 고졸 이하에서 1999년 상용직 비중은 각각 70.3%, 55.7%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과 큰 비중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졸 미만 저학력자의 2011년 상용직 비중은 24.4%로 대략 2/3가 감소한 대신 임시일용직 비중이 39.6%까지 증가했으며, 미취업자 비중은 29.4%까지 증가함.
- 중기청년층에서는 고졸 미만 및 고졸 저학력 청년층의 상용직 비중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임시일용직 및 미취업자 비중 상승이 발견됨.
  -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미취업자 비중은 1999년 5.6%에서 2011년 11.9%까지 증가, 고졸 이하에서 9.9%에서 15.2%까지 증가해 외환위기 이전 시점(1991~2011년)의 코호트 분석결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반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의 미취업 비중은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

〈표 2〉 청년코호트(20~35세)의 학력별 종사상지위 변화 : 1999~2011년

(단위:%)

		코호트1 (20~23세)			코호트2 (24~27세)			코호트3 (28~31세)			코호트4 (32~35세)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1999	상용직	70.3	55.7	73.1	92.7	74.2	69.8	59.4	66.0	72.7	48.7	55.8	74.4
	임시일용	29.7	6.1		1.7	4.5		11.5	4.7	3.9	9.5	6.5	0.2
	자영업		2.0	1.7		11.5	9.6	17.6	19.7	17.5	30.9	30.0	21.8
	미취업		36.2	25.2	5.6	9.9	20.6	11.5	9.6	5.9	10.8	7.7	3.6
2003	상용직		58.8	77.6	40.2	60.0	80.6	13.8	44.6	70.1	23.0	43.8	64.3
	임시일용	100	23.5	7.0	53.6	17.0	2.7	54.5	18.5	5.1	50.3	21.7	5.2
	자영업		6.3	5.5	6.2	19.4	12.4	9.6	30.8	19.8	16.0	28.1	25.0
	미취업		11.4	9.9		3.7	4.4	22.2	6.2	5.0	10.8	6.4	5.6
2007	상용직	33.5	75.5	84.9	67.5	61.5	81.0	51.4	59.3	77.8	46.5	50.8	67.5
	임시일용	66.5	6.1		13.0	7.0	0.3	21.3	9.1	1.6	15.0	7.9	1.3
	자영업		11.7	8.2	14.7	25.8	13.3	7.7	24.5	15.3	23.3	34.7	26.3
	미취업		6.7	6.9	4.8	5.8	5.3	19.5	7.1	5.3	15.2	6.5	4.9
2011	상용직	24.4	56.8	76.2	63.3	45.1	76.1	47.5	39.7	69.6	24.9	44.0	66.7
	임시일용	39.6	14.2	8.0	17.2	16.2	7.8	36.7	20.9	5.0	32.0	21.9	6.8
	자영업	6.7	13.7	10.1	7.6	23.5	10.6	8.8	29.5	19.6	36.4	25.3	22.2
	미취업	29.4	15.3	5.7	11.9	15.2	5.4	7.1	9.9	5.8	6.8	8.7	4.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6%로 저학력층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으나 이 비중은 이후부터 크게 하락해 2011년 기준 5.4%까지 낮아짐. 고학력층의 상용직 비중(69.8%→76.1%)이 증가하는 양상 또한 동일 코호트 저학력층과 대조를 이룸.

### 청년층 코호트의 근로소득 변화

- 청년코호트별 근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근로소득 규모와 증가폭이 고학력 청년층에 비해 낮은 양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모든 코호트에서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소득 금액과 증가율이 가장 낮아 노동시장 성과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전기청년층(20~23세)의 소득변화를 보면, 고졸 미만 청년층은 1991년 364천 원에서 2011년 1,641천 원까지 28.5%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고졸 이하 청년층은 1991년 359천 원(고졸 미만 청년층보다 낮은 수준)에서 2011년 기준 2,607천 원(39.1%)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같은 기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은 405천 원에서 3,674천 원(44.4%)까지 증가해 학력수준별 근로소득의 차이가 상당함. 2011년 기준 고졸 미만 청년층(20~23세 코호트)은 고졸 이하 청년층의 63.9%,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44.6% 소득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기청년층에서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에 고졸 미만 및 고졸 청년층은 각각

16.0%, 7.0%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 (39.8%)에 비해 근로소득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2007년 시점에는 고졸 미만 청년층에서 소득감소(-3.8%)가 경험됨.

- 후기청년층의 경우 외환위기 시점(1999년)에 고졸 미만에서 18.2%의 소득감소가 발생했고, 고졸 청년층은 0.5%의 소득증가에 그쳐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25.8% 소득증가율과 대조를 이룸.

-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에 청년기에 접어드는 코호트들의 이후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코호트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소득규모와 증가율이 낮음.

- 특징적인 것은 고졸 미만 전기청년층(20~23세)은 1999년 기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이나 고졸 청년층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들이 중기청년기에 접어드는 2003년에 소득의 역전현

상이 나타나고 2007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짐.

- 이들이 32~35세 연령이 되는 2011년에는 고졸청년층의 71.2%, 전문대졸 고학력 청년층의 57.2%에 해당하는 1,701천 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기 및 후기청년층을 중심으로 학력×고용 상태별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근로소득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고졸 이하 중기청년층의 상용직 근로소득은 1999년 1,008천 원 수준에서 2009년 2,782천 원 수준으로 연평균 28.9%의 증가율을 기록, 이는 전문대졸 상용직의 34.3% 증가율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증가율임.

- 근로소득의 절대규모도 2009년 기준 약 97만 원가량 낮은 것이어서 학력수준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발

〈표 3〉 청년코호트(20~35세)의 근로소득 변화 : 199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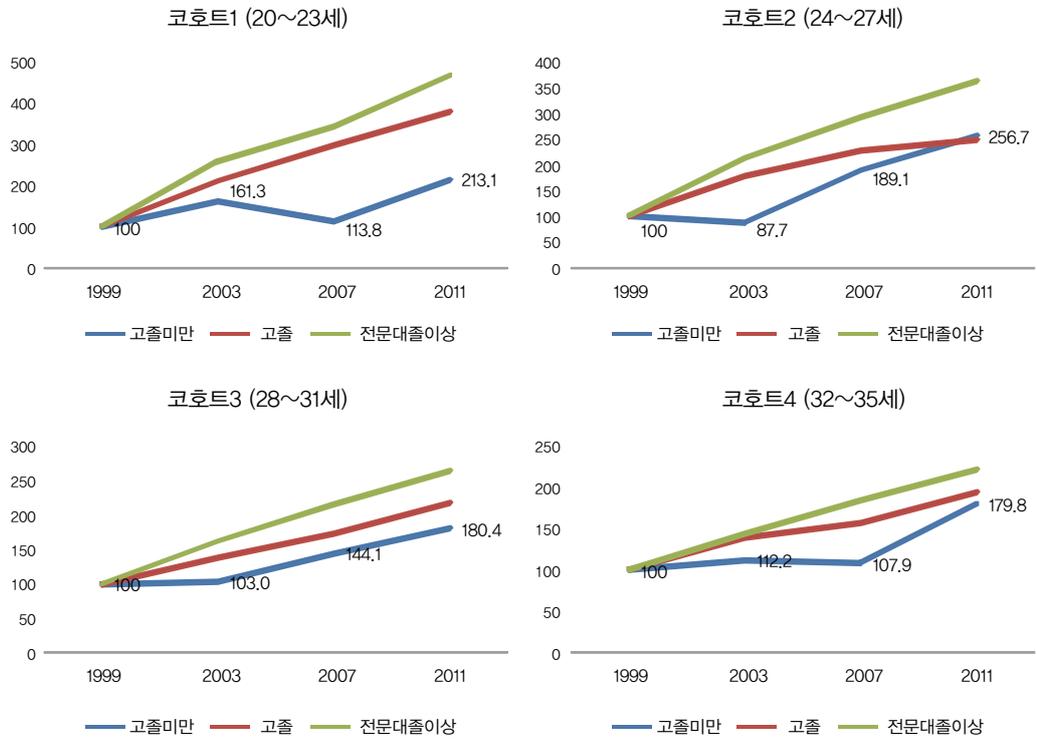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연평균 증가율
코호트1 (20~23세)	고졸 미만	364	797 (119.1)	910 (14.2)	937 (3.0)	1,311 (39.9)	1,641 (25.2)	28.5
	고졸 이하	359	1,006 (179.8)	1,197 (19.0)	1,653 (38.1)	2,078 (25.7)	2,607 (25.4)	39.1
	전문대졸 이상	405	897 (121.3)	1,385 (54.5)	2,237 (61.5)	2,988 (33.6)	3,674 (22.9)	44.4
코호트2 (24~27세)	고졸 미만	604	960 (58.9)	1,113 (16.0)	1,249 (12.2)	1,201 (-3.8)	2,002 (66.7)	22.1
	고졸 이하	630	1,264 (100.7)	1,352 (7.0)	1,894 (40.1)	2,125 (12.2)	2,635 (24.0)	26.9
	전문대졸 이상	593	1,295 (118.5)	1,811 (39.8)	2,608 (44.0)	3,350 (28.5)	4,038 (20.5)	37.7
코호트3 (28~31세)	고졸 미만	696	1,211 (74.1)	991 (-18.2)	1,314 (32.6)	1,372 (4.4)	2,007 (46.3)	19.3
	고졸 이하	763	1,368 (79.3)	1,375 (0.5)	1,911 (38.9)	2,334 (22.1)	2,656 (13.8)	23.1
	전문대졸 이상	826	1,534 (85.7)	1,930 (25.8)	2,728 (41.4)	3,362 (23.2)	4,138 (23.1)	30.8
코호트4 (32~35세)	고졸 미만	686	1,144 (66.7)	1,063 (-7.1)	1,410 (32.7)	1,444 (2.4)	1,469 (1.7)	13.5
	고졸 이하	829	1,419 (71.2)	1,467 (3.4)	1,985 (35.3)	2,254 (13.6)	2,325 (3.1)	18.8
	전문대졸 이상	1,027	1,713 (66.7)	2,195 (28.1)	2,982 (35.8)	3,474 (16.5)	3,536 (1.8)	22.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1]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코호트별 근로소득 지수 변화

(1999=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4>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단위: 천 원, %)

			1999	2003	2007	2011	연평균 증가율			
24~27세	고졸 이하	상용	1,008	1,787	(77.3)	2,303	(28.9)	2,782	(20.8)	28.9
		임시일용	966	1,191	(23.4)	1,142	(-4.2)	1,520	(33.2)	12.0
		자영자	1,114	1,923	(72.6)	2,175	(13.1)	3,158	(45.2)	29.8
		무직	139	524	(277.6)	1,050	(100.2)	725	(-31.0)	51.1
	전문대졸 이상	상용	1,154	2,115	(83.3)	2,866	(35.5)	3,749	(30.8)	34.3
		임시일용	-	1,137	-	1,245	(9.5)	1,812	(45.5)	16.8
		자영자	802	1,840	(129.3)	2,531	(37.6)	2,700	(6.7)	35.4
	무직	215	263	(22.5)	1,120	(326.1)	1,693	(51.2)	67.6	
28~31세	고졸 이하	상용	1,237	1,888	(52.6)	2,250	(19.2)	3,195	(42.0)	26.8
		임시일용	1,099	1,268	(15.4)	1,368	(7.8)	1,516	(10.9)	8.4
		자영자	1,372	1,725	(25.7)	2,290	(32.8)	2,917	(27.4)	20.8
		무직	352	536	(52.3)	376	(-29.9)	1,046	(178.3)	31.3
	전문대졸 이상	상용	1,471	2,446	(66.2)	3,230	(32.1)	4,145	(28.3)	29.5
		임시일용	836	1,603	(91.8)	973	(-39.3)	2,297	(136.1)	28.7
		자영자	1,463	2,002	(36.8)	2,401	(19.9)	2,921	(21.7)	18.9
	무직	463	894	(92.9)	1,770	(98.1)	1,741	(-1.7)	39.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생함을 알 수 있음.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고졸 이하에서 12.0%의 증가율을 기록해 가장 낮았으며 특히 2007년에는 근로소득의 감소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중기청년층의 경우, 학력수준 별로 상용직에서는 약 100만 원가량 근로소득 규모가 낮게 형성되고 있고, 임시일용직에서는 약 3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함.

- 2011년에는 전문대졸과 대학 이상 고학력층의 빈곤발생비가 1.5%, 1.6%로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빈곤위험이 크게 높은 실정임.
- 빈곤구성비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청년층 빈곤계층 중 고졸 이하 저학층 비중이 64.8%로 전문대졸 16.7%, 대학 이상 1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빈곤실태

- 20~35세 청년층의 외환위기 이후 빈곤규모와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빈곤위험이 높게 분석되고 있음.
  - 20~35세 청년층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1999년 9.7%에서 2007년 10.1%까지 증가했고, 2011년 기준 8.9%로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임.
  - 학력수준별 상대빈곤 발생비를 살펴보면 1999년 고졸 이하 저학력층 7.3%, 전문대졸과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각각 0.9%, 1.5%로 나타나 저학력층의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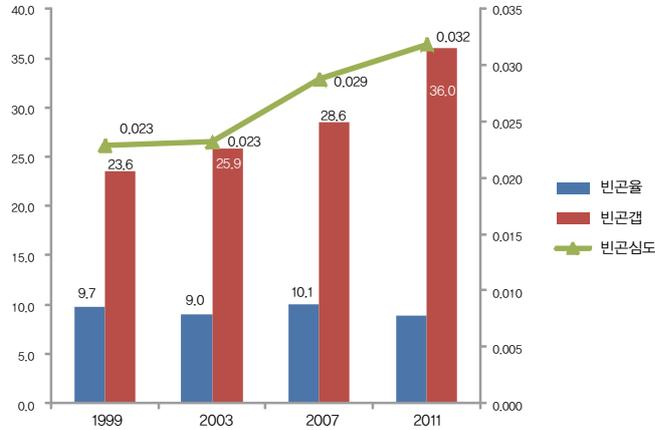
- 빈곤선 대비 빈곤계층의 평균소득의 차이로 정의되는 빈곤갭을 살펴보면, 1999년 23.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6.0%까지 증가했음.
  - 빈곤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빈곤청년층의 소득증가 둔화는 빈곤갭의 확대로 이어지는 양상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빈곤율과 빈곤갭의 곱으로 정의되는 빈곤갭비율(빈곤심도, depth of poverty)은 1999년 0.023에서 2011년 0.032까지 증가해 빈곤의 심각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청년층의 학력별·고용형태별 빈곤구성비는 2011년 기준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고졸 이하 저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표 5〉 20~35세 청년층의 외환위기 이후 빈곤규모와 변화

		1999	2003	2007	2011
발생비	전체	9.7	9.0	10.1	8.9
	고졸 이하	7.3	6.9	6.9	5.7
	전문대졸	0.9	1.3	1.5	1.5
	대학 이상	1.5	0.7	1.7	1.6
구성비	고졸 이하	75.6	77.3	68.6	64.8
	전문대졸	9.1	14.8	14.9	16.7
	대학 이상	15.3	7.9	16.5	18.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2]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20~35세)의 빈곤규모와 심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6> 20~35세 청년층의 고용형태별 빈곤구성

(단위 : %)

	1999			2003			2007			2011		
	고졸	전문대졸	대학 이상									
상용	28.4	2.1	3.8	21.2	5.0	3.7	33.3	9.5	5.0	12.2	4.6	1.9
임시일용	7.1	0.3	0.4	27.2	1.9	0.0	12.9	0.0	0.6	20.2	3.5	5.6
자영	22.8	3.2	5.7	17.4	2.7	2.3	7.8	3.8	3.1	5.2	6.7	3.1
미취업	17.3	3.5	5.4	11.5	5.2	1.9	14.6	1.6	7.8	27.2	2.0	7.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상용직 빈곤구성은 외환위기 시점인 1999년 28.4%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21.2%까지 하락했고, 2011년 기준 12.2%를 기록함.
-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1999년 7.1%에서 2011년 20.2%까지 증가했으며, 미취업자에서도 같은 기간 17.3%에서 27.2%까지 크게 증가함.
- 전문대졸 및 대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는 임시일용직의 빈곤구성 증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비중 증가만큼 크지 않음.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02-3775-5581 / jhban@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http://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http://www.kli.re.kr)